

01 교회소식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열매

앞뒤좌우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 국내외 성도들에게 펼쳐 주신 은혜의 간증들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4

요나단의 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심없이 하나님 뜻을 따르며, 악을 행하는 아버지에게도 끝까지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03 BOOK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서 나눠주시신 믿음의 분량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봄별처럼 따스한 주님의 사랑~

주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태국 라다반 비첫뵈 권찰과 천식,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은 장유정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571호 2013년 3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동서남북에서 축복의 소리가 들립니다”

### 신속한 치료와 응답·축복, 마음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첫째 줄 이재성 집사, 강인옥 권사, 몽골 체체게 집사, 아프리카 정명호 목사, 인도 낸시 카푸르 자매, 네팔 찬양 라이 형제, 둘째 줄 배정숙 권사, 콩고민주공화국 비양페 형제, 일본 아키코 집사, 신남순 집사, 셋째 줄 태국 이재원 선교사 가족, 임수희 집사, 노성금 집사, 문기현 집사, 박장심 권사, 태국 농눯 시차이 성도(왼쪽).

새싹이 움트는 계절, 성도들의 간증을 들는 재미가 쏠쏠하다.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치료, 응답,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다양한 축복의 간증이 앞뒤좌우, 동서남북에서 설세없이 터져 나와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요한삼서에 기록된 대로 진정한 축복은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다. 많은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뿐 아니라 주님 마음을 닦고자 낮아지고 섬기며 변화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성경 읽는 재미에 빠졌다.”, “기도 시간이 사모된다.”며 곳곳에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나누고 있다.

이렇듯 영혼이 잘되니 사업터에 큰 계약이 성사되는 등 십일조가 늘어나는 축복,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축복, 원하던 근무지로 발령받는 축복 등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넘친다.

수상 소식도 속속 들린다. 육군항공학교 헬리콥터 조종사 박병민 성도(40)는 아프가

니스탄 파병 근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임수희 집사(44)는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구로구청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문기현 집사(51)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공기업 SH공사에 근무하는 백용철 집사(48)는 근무성적이 우수해 ‘서울특별시 표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오랜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도 많다. 신남순 집사(50)는 큰오빠 내의를 비롯한 친정 식구 9명이 한꺼번에 주일예배에 참석해 “가족복음화를 위해 쌓아온 기도가 응답됐다.”며 행복해했다.

치료 역사도 더욱 급속히 일어나 강인옥 권사(57)는 “옆구리가 쭈시고 열이 나며, 등허리에 수포가 생기는 대상포진에 걸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환부에 딱지가 앉아 하루 만에 치료됐다.”라고 간증했다.

이 밖에도 이재성 집사(48)는 과열된 좌측 무릎 연골을 치료받았고, 노성금 집사(63)는 극심한 전신가려움증을, 박장심 권

사(63)는 심각한 어깨 통증을, 배정숙 권사(76)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증상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한 역사는 해외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일본 기타하라 아키코 집사(46)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 신앙이 정제됐고, 잠넘과 졸음으로 늘 피곤한 기도생활이었다. 지금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루 종일 TV 시청에 빠져 살던 인도 낸시 카푸르 자매(21)는 TV 시청을 끊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됐다. 네팔 찬양 라이 형제(29)는 “주님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져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벗어나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또 어머니께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기쁘다.”고 간증했다.

태국 농눯 시차이 성도(51)는 “오랫동안 사찰에서 여신도회장을 하며 우상을 섬겼으나 딸과 함께 최근 치앙라이만민교회에 출석하며 참 평안을 얻게 됐다.”라고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아요 바비다 비양페 형제(27)는 질주하던 미니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으나 보호받았고, 몽골 공가 체체게 집사(59)는 차량 전복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또 태국 이재원 선교사 가족은 해발 1,700m 산길을 내려오던 중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차가 길가 쪽에 안전하게 멈춰 서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한편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는 “아프리카에도 간증이 넘치고 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많은 성도가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며,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치료의 역사와 물질 축복, 믿음의 성장 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 확산돼 마지막 때 무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요나단이 그 아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음소서...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무엘상 19:4~5)

# 요나단의 선(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지요.

날이 갈수록 사울 왕의 시기는 심해져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하게 전쟁에 내보내고, 그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9:4~5에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음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간청했습니다.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영예나 칭찬을 얻지 못해도 세상의 소금처럼 아무 형체 없이 녹아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합니다. 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 할 수 있지요.

## 2) 범죄를 막고자 온 힘을 다하는 마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큰 악을 막기 위해 살기등등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어찌하든 더 큰 악을 행치 않도록 자신이 해를 받을지라도 거듭 간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치 않도록 옹호할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입니다.

역사를 보면 충신들은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왕이 그릇 행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길로 가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부서나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윗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윗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내 생각이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말을 퍼트리거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얼마나 선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윗분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갈지라도 윗분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더욱 횡방할 거리를 안겨 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말할 일이 아니다.” 하고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도 선이 아닙니다. 또한 윗분이니까 말하기 어려워서, 또는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묵인한다면 이 역시 선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일까요? 먼저는 진

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선의 지혜 속에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마음

선한 사람은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차라리 눈을 돌려버리고 싶고 악한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다면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악한 아버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 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사울 왕을 버렸고 악인과 함께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싸우다가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생사를 함께함으로 도리를 다한 것이 바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악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악함을 알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범죄치 않도록 수차례 간청하는 등 최선을 다해 막았지요. 그러면서도 자녀 된 입장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아버지를 외면하거나 자녀로서의 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 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 뜻을 사심 없이 받아들여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아버지 사울 왕이 범죄치 않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신속히 온전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요나단의 선

### 1) 사심 없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마음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입장이라면 사울 왕과 다윗 중에 누구 편을 들겠는 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버지요, 한 나라의 왕이니 그의 말을 거역하고 친구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불효이자 불충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 됐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뜻을 사심 없이 받아들여 다윗을 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30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지요. 이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자신의 명예와 영광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맏아들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위에는 한 사람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며 친구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습니다(삼상 18:1, 삼하 1:26).

이것은 다윗의 선함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아름다운 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 1. 사울 왕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던 요나단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였으나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매우 기뻐해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과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일주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유료로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

## 1 단계 구원받기 위한 믿음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 안에 보내 주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사람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고후 1:21~22).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편 강도의 믿음이 이에 해당한다(눅 23:39~43).

## 2 단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을 마음에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 3 단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나온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면 행함으로 짓는 죄 곧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곧 육신의 일을 버리며 마음의 죄성까지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3단계에 이르렀다 해도 처음에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은 하지만, 마음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다가 죄성이 많이 버려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게 된다.

믿음의 3단계에서 60퍼센트 이상을 이루면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말할 수 있다(마 7:24~25).



예수님과 함께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간 한 편 강도의 믿음과,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생명 다해 충성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가 하면(마 15:28)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마 17:20). 이처럼 믿음에는 크고 작은 분량이 있으므로 로마서 12:3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믿음이 주어진다. 계단을 오를 때에 첫 계단부터 차례로 밟아 올라가듯이 영적인 믿음도 나날이 성장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과연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 믿음의 분량은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재록 목사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이처럼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마음을 닦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딤후 4:7). 마음 안에 숨겨진 악의 큰 뿌리마저 온전히 뽑아버리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

많은 성도가 믿음의 3단계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죄악을 버리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를 신속하게 뚫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는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을 버려야 한다.

## 4 단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물론, 모든 악의 모양도 버리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마음을 닦아가는 만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큰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사에 섬기고 낮아지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씀씀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이 아름답고 선하게 나타난다. 이 선한 향은 주변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셔서 범사에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신다.

## 5 단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단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이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명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오직 예와 아멘뿐이며 생명을 바쳐 순종한다.

또한 무수한 기도를 쌓아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며, 온 집에 충성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되 모든 분야에서 주어지는 대가 이상으로 넉넉히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믿음의 5단계 곧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모든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즉시 응답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다.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예비해 놓았다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 3

March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3 GCN방송 시청자 설문조사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2012년 한 해 동안 GCN방송서비스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2013 GCN방송 시청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우림북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2월 24일 - 3월 3일
- 방법 : 홈페이지 [www.gcntv.org](http://www.gcntv.org), [www.manmin.org](http://www.manmin.org)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http://m.gcntv.org) 접속 후 설문참여
- 후원 : URIM 우림북

GCN

www.gcntv.org

선천성 농아인 저는 아홉 살 때부터 동성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사주고 남자복장을 하는 등 이성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지요.

어느 날 저는 클럽에 가기 위해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이었던 지파렛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 집사가 돼 있었고, 제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2010년 12월, 태국 푸켓만민농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이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지요.

설교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은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셨고, 전 세계 70억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셨지요. 저는 당회장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농아들이 신앙생활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니 '이곳은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



### “주님을 만나 레즈비언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라다반 비치붓 권찰 (태국 푸켓만민농아교회)

을 알게 됐지요. 특히 당회장님의 저서 『지옥』을 통해 지옥의 참상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며 레즈비언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 후 각종 예배와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 친구들은 달라진 저의 모습에 몹시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남자 같았던 제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니 제가 보기에도 신기했지요.

2012년 여름,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찾은 만민중앙교회 본당은 온통 신령한 은혜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다니엘절야 기도회 때 성결을 이루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성결을 더욱 사모하게 됐지요. 저는 수련회 기간 내내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은혜를 꼭 보답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태국에 돌아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용으로 영광 돌리며 전도에 힘쓰고 있지요. 많은 농아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 “60년 된 천식과 13년 된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았어요”

장유정 집사 (69세, 3대대 32교구)



2006년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분이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체 부자유 장애 1급 1호인 몸이 정상으로 된 김윤섭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이 실린 '만민뉴스'를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뇌종양수술 이후 우측편마비가 발병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천식과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지요.

간증을 읽은 저는 '이런 기적도 일어난단 말인가!' 참으로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지요.

####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고

2006년 9월,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시작하는 철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깊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므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드러지는 2부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했지요.



▲ 척추 보조기를 착용하고 늘 앉아서 잠을 자야만 했으나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되었다.



▲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후 완치되어 행복한 기쁨을 이루었다.

마치 천국에 온 듯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바쁘신 중에도 매주 예배 전에 성도님들을 가까이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몇 주 지나지 않아 우측 편마비가 호전돼 지팡이를 버리고 걷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시력도 좋아져 안경을 벗어도 사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며

지난 1월 2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하러 교회에 왔는데 천식으로 인한 기침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역질이 나 급히 화장실에 가서 이물질 한 덩어리를 토했지요. 그 후 기침 증상은 물론, 60년 된 천식이 치료됐습니다. 고질병인 천식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송구영신예배 때 당회장님의 신년 축복기도를 받은 후 치료된 것입니다.

또 8일에는 평소처럼 주보에 실린 '지난주 설교 요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면서 제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했습니다. 그 후 13년 된 무릎관절염이 치료돼 이전 계단도 잘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노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4, 010-5202-554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3-3 5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참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기(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서울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